



## 圓光의 戒懺悔 신앙과 그 의미

Wonkwang's Penitence-belief with commandments and its Meaning

---

저자 (Authors)	金杜珍 Kim, Doo-Jin
출처 (Source)	<a href="#">신라사학보</a> , (2), 2004.12, 51-93 (43 pages) <a href="#">SILLASAHAKPO</a> , (2), 2004.12, 51-93 (43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신라사학회</a>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189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1894</a>
APA Style	金杜珍 (2004). 圓光의 戒懺悔 신앙과 그 의미. 신라사학보, (2), 51-9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1 16:0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圓光의 戒懺悔신앙과 그 의미

金杜珍\*

I. 머리말

II. 원광의 시대와 활동

III. 계참회신앙의 내용

IV. 계참회신앙의 의미

V. 맺음말

## I. 머리말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이후 귀족불교가 유행하면서 토착신앙과 융합된 주술 불교가 퍼져나갔다. 그러면서도 신라 토착신앙의 전통은 그대로 고수되는가 하면, 正法의 불교 교학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원광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토착신앙이나 주술 불교 또는 정법 불교 등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이루었다. 원광의 교학은 신라 사회에 비로소 정법 불교가 정립되게 하였다. 불교 교학은 원광과 慈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주요 논저 : 《均如華嚴思想研究》, 일조각, 1983 ; 《義湘 그의 생애와 화엄사상》, 민음사, 1995 ; 《韓國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일조각, 1999 ; 《신라화엄사상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원시종교론》, 탐구당, 1976외 다수

藏을 거쳐 원효나 의상 때에 이르러 철학적인 논리 체계를 정립하였다. 원광의 사상에 대한 접근은 신라 사회에 정법불교 교학이 자리하는 면을 알려줄 것이다.

원광의 전기는 《續高僧傳》과 신라의 《古本殊異傳》에 각각 전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다르다. 자연 그의 평생은 물론 출가 수도 및 생몰 연대를 확실하게 지적하기 어렵다. 그 결과 원광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행해졌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찾을 수 없다. 이 글은 혼란한 원광에 대한 기록과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비교적 확실한 그의 활동과 교학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광의 활동 연대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은 비교적 정확하다. 그 중 그의 유학 연대인 589년은 《고본수이전》이나 《해동고승전》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다만 《속고승전》에는 長安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때에 그가 중국에 체류했음을 알려준다.

이 글은 우선 중국에 유학한 589년을 중심으로 그의 평생과 활동을 복원하고자 한다. 《속고승전》에는 그의 사상의 특성이 계참회신앙으로 기록되었다. 《고본수이전》에서 같은 내용으로 나와있는 歸戒滅懺法是은 계법을 지니고 占察寶를 행하는 것이다. 그의 계참회신앙 곧 계법과 점찰법회의 내용을 밝히고, 그것이 당시 신라 사상계에서 갖는 의미나 신라 불교사에서의 위치를 밝히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신라 법상종교학이 태동하는 실마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 II. 원광의 시대와 활동

고구려에서 신라로 유입할 당시의 初傳불교는 北朝 불교의 특성인 王即佛사상을 포용하였다. 그것은 주로 왕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

다. 북조 불교의 특성을 지닌 제왕 불교의 경향이 귀족들에게 수용되기는 어렵다. 법흥왕 때의 불교는 남조 불교의 특성, 곧 국왕도 수도자의 입장에 있다는 王卽菩薩사상을 수용하면서 공인되었다.<sup>1)</sup> 이후 신라는 중국 남조와 빈번하게 교류하였고, 覺德이나 明觀 등이 梁이나 陳으로부터 사리와 경전을 가지고 돌아왔다.<sup>2)</sup> 원광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安弘이나 智明도 隋나 陳에 들어가 불법을 구하고 돌아왔다. 원광도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 중국에 들어가 불법을 구해왔고, 그의 귀국은 신라 승려가 중국에 유학하여 불법을 구해오는 기폭제가 되었다.<sup>3)</sup>

원광의 생애를 분명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게 전하지 않으면서 또한 심히 혼동되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권4의 圓光西學조에는 《속고승전》과 《고본수이전》의 원광전이 기록되었다. 또한 《해동고승전》에도 원광전이 실려있다. 이 세 원광전의 내용은 서로 매우 다르게 서술되었다. 원광의 입적 사실

1) 김두진, <신라 공인불교의 사상과 그 정치사적 의미>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7, 85~86쪽; 신종원, <6세기 신라불교의 南朝의 성격>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188~205쪽.

2) 김두진, 위의 논문, 86쪽.

김두진은 신라 불교가 공인되면서 북조 불교의 특성인 왕즉불사상의 ‘帝王卽如來’가 아니고, 남조에서 유행한 王卽菩薩의 救世보살사상으로 성립되었다고 하였다. 구세보살사상은 왕도 수도자로서 출가하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가하는 전륜성왕 관념을 가졌다.

신종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남조적 성격으로 규정하고는 그 가장 큰 특징을 ‘捨身’에 두었다. ‘사신’은 정확한 표현인지 알 수 없으나, 전륜성왕의 출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곧 북조 불교의 특성인 왕즉불사상과 대조되는 왕즉보살의 구세보살사상이 남조적 성격으로 불린 셈이다.

3) 《삼국유사》 권4, 圓光西學조에 “海東人鮮有航海問道者 設有 猶未大振及光之後 繼踵西學者 憧憧焉”이라 하였다.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A-1. 고본수이전 : 향년 84세에 입적하였다. … 80여 세로 貞觀(627~649) 연간에 죽었다.

2. 속고승전 : 建福 58년(641)에 皇隆寺에서 99세로 운명하였는데, 곧 당나라 정관 4년(630)이다.

《고본수이전》이나 《속고승전》의 원광전에 기록된 그의 입적 연대는 모두 혼동되어 있다. 그 중 어느 것이 옳은 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다른 자료가 나오지 않은 이상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고본수이전》에서 84세에 입적한 사실과 627년에서 649년 사이에 80여세로 죽었다는 사실은 서로 배치되는 기록이 아니다. 그러나 《속고승전》에서 그가 99세로 죽었다는 건복 58년(641)과 정관 4년(630)은 심히 혼동된 기록이다. 《고본수이전》에는 원광이 589년(진평왕 11)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11년을 머물고는 600년(진평왕 22)에 귀국하였다고 했는데, 《속고승전》에는 그가 589년에 長安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 외에 두 승전에서 원광의 활동에 대한 절대 연대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삼국사기》에는 그의 활동에 관한 절대 연대가 다소 나타나 있는데 다음과 같다.

B. 중국 유학 : 589년(진평왕 11)

귀국 : 600년(진평왕 22)

수에 올릴 乞師表를 작성 : 608년(진평왕 30)

황룡사에서 百高座를 주관 : 613년(진평왕 35)

貴山과 箒項은 602년(진평왕 24)에 백제와의 전투에 참가하여,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말 것을 실행하고는 전사하였다(《삼국사기》 권 45, 귀산전). 이로 보면 원광이 귀산과 추항 두 청년에게 세속 5계를

내린 시기는 600년에서 602년 사이임이 분명하다.<sup>4)</sup> 《삼국사기》에서 원광의 활동 시기를 알려주는 절대 연대는 《해동고승전》의 원광전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이점은 원광의 활동을 기록한 《삼국사기》의 연대를 그대로 믿게끔 한다. 다만 《해동고승전》은 원광의 입적 연대에 대하여 《속고승전》의 기록을 답습하였다.

원광의 출가에 대한 기록은 더욱 혼동되었다. 《해동고승전》은 13세 때에 출가했으며, 30세 때에 삼기산에 들어가 수도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고본수이전》의 기록과 대체로 일치한다. 거기에는 원광이 처음에 승려가 되어 불법을 배웠고, 30세가 되어 삼기산에 들어가 홀로 수도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속고승전》에는 원광이 25세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는 25세 이후에 출가한 셈이 된다. 출가한 곳이 신라와 중국이었다는 상이한 기록은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의 원광이 존재했던 것으로 의심하게 했다.<sup>5)</sup> 이상에서 제시했듯이 원광의 활동 연대에 대한 기록이 서로 상이한 것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삼국사기》의 원광에 대한 기록이다.

원광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다시 귀국하는 연대는 《삼국사기》나 《고본수이전》·《해동고승전》에 모두 589년과 600년(진평왕 22)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이 기록은 믿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원광이 삼기산에서 수도하던 시기는 《고본수이전》과 《해동고승전》에 모두 30세 때라고 기록되었다. 이것 역시 대체로 신빙성을 주는 기록이다. 그렇다면 원광은 34세 때에 이웃에 거주한 주술 승려가 벼락을 맞아 죽음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였고, 2년 후 곧 36세 때에 중국으로

4) 鄭永鎬, <원광법사의 三岐山 金谷寺> 《史叢》 17·18합, 1973, 196쪽.

5)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에 “據如上唐鄉二傳之文 但姓氏之朴薛出家之東西如二人焉 不敢詳定 故兩存之”라고 하였다.

유학하였다.<sup>6)</sup>

589년이 원광의 36세 때라면, 이를 근거로 그의 활동 연대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광은 554년(진흥왕 5)에 출생하였고 어려서 출가하였다. 13세 때에 출가했다는 《해동고승전》의 기록이 옳다면, 그는 566년(진흥왕 27)에 출가하였다. 583년(진평왕 5)에 삼기산에서 수도하였으며, 589년에 중국으로 유학하여 11년을 머문 후 600년에 귀국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47세였다. 이후 602년에 이르는 시기에 그는 귀산과 추항 두 청년에게 세속 5계를 내렸다. 608년(진평왕 30)에는 수나라에 청할 乞師表를 작성하였고, 613년(진평왕 35)에는 皇龍寺에서 百高座를 주관하였으며, 637년(선덕왕 6)에 84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sup>7)</sup> 이렇게 되면 그의 입적 연대는 《고본수이전》에서 80여세의 나이로 정관 연간, 곧 627년에서 649년 사이에 죽었다고 하는 이설과도 일치한다.

원광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고본수이전》과 《해동고승전》의 내용이 더 신뢰성을 준다. 다만 《해동고승전》에는 寶讓에 관한 사적이 원광의 활동으로 혼동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년이나 입적에 관한 사실이 잘못 기재되었을 듯하다. 그가 99세로 641년 또는 630년에 입적했다는 기록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sup>8)</sup> 이상에서 추정한 원광의 활동 연대를 알기 쉽게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원광의 활동에 대한 《고본수이전》의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그것은 국내에서 원광의 활동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비해 《속고승전》의 내용은 《고본수이전》

6) 李基白, <圓光과 그의 사상> 《창작과 비평》 10, 1968 : 《신라사상사 연구》, 일조각, 1986, 111쪽.

7) 이기백, 위의 논문, 111쪽.

8) 이기백, 위의 논문, 112쪽의 주 32 참조.

의 그것과 다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많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원광의 활동의 다른 면을 알려준다. 곧 그것은 중국에서 원광의 교학 활동을 이해하게 한다.

〈표 1〉 원광의 활동 연대

	삼국사기	고본 수이전	속고승전	해동고승전	필자 추정
출생					554년 (진홍왕 15)
출가			25세 이후	13세	566년(진홍왕 27)에서 멀지 않은 시기
三岐山 수도		30세		30세	583년(30세)
중국 유학	589년 (진평왕 11)	589년 (36세)	589년 (長安에 이름)	589년	589년(36세)
귀국	600년 (진평왕 22)	600년		600년	600년(47세)
세속 5계					602년까지는 내림
乞師表 작성	608년 (진평왕 30)			608년	608년(55세)
황룡사 百高座	613년 (진평왕 35)			613년	613년(60세)
입적		84세(627 ~649년)	99세(641년, 선덕왕 10) 또는 (630년, 진평왕 52)	99세(641년) 또는 630년	637년 (선덕왕 6, 84세)

중국으로 유학하기 전의 약 6년간은 원광이 삼기산에서 수도생활에 정진하던 시기이다. 589년에 중국으로 들어가 귀국하기까지 11년간 중국에 머무는 동안 그는 불교의 여러 교학을 익혔다. 유학 생활은 그의 교학이 형성되는 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가 신라 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시기는 중국에서 귀국하는 600년 이후이다.

그는 84세에 입적하지만 황룡사에 백고좌를 주관하던 613년, 곧 그의 나이 60세 이후의 행적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원광은 진평왕 22년에서부터 진평왕 35년을 크게 넘어서지 않은 진평왕대 중반 이후에 활동하였다.

진평왕은 진흥왕의 長子인 銅輪系 세력의 도움으로 즉위하였다. 581년(진평왕 3)에 位和部の 설치를 계기로 하여 591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부를 새로 설치하는 개혁이 진행되었다. 그러한 개혁은 동륜계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진평왕은 무려 53년동안 재위하였고, 진평왕대 후기의 개혁 조치는 왕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지만 龍春 등 舍輪系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sup>9)</sup> 원광은 속성이 薛氏였으며 6두품 가문에 속하였다. 《속고승전》에는 그가 박씨였다고 기록되었으나 설씨였다는 것이 옳다.<sup>10)</sup> 그가 6두품 신분이었음은 그의 정치 활동이나 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진골 신분에 비해 정치적인 사회 진출에 한계를 느꼈던 6두품 출신 인물들은 종교나 학문 분야에 나아감으로써, 신분적인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였다.<sup>11)</sup> 신라상대말에 그러한 대표적 가문으로 설씨를 들 수 있다. 특히 원효는 불교사상에 뛰어남으로써, 골품의 한계를 넘어서서 瑤石宮의 홀로된 공주와 결혼하였다. 물론 6두품 가문으로 신라시대에는 崔致遠을 비롯하여 최씨들이 儒學에 종사하는 등 크게 활동하지만, 신라상대말이나 중대 초기에 활동한 인물을 쉽게 찾을 수는 없다. 이에 비해 이 시기 설씨들의 활동은 흔히 찾아진다.<sup>12)</sup>

9) 김두진, <신라 眞平王代 초기의 정치개혁 - 삼국유사 所載 桃花女 · 鼻菀 郎조의 분석을 중심으로 - > 《진단학보》 69, 1990, 36쪽.

10) 이기백, <원광과 그의 사상>, 앞의 책, 96쪽의 주 1 참조.

11) 이기백, <신라 六頭品 연구> 《省谷論叢》 2, 1971 : 《신라정치사회사 연구》, 일조각, 1974, 57~59쪽.

12) 설씨로서 신라상대말에서 중대 초기에 활동한 인물은 원광과 원효 외에

신라상대말에 설씨를 포함한 6두품 귀족은 골품제에 불만을 가졌다. 662년(진평왕 43)에 薛闕頭는 “신라가 사람을 쓰는데 골품으로 논하니, 만일 그 族屬이 아니면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삼국사기》 권47, 설계두전)라고 하면서 중국으로 들어갔다. 설계두를 비롯한 6두품 귀족들이 골품제에 대해 가진 불만은 진골 귀족의 이해와 대립되는 것이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실이나 왕당파 세력과 6두품 귀족은 친밀하였다. 왕실이나 왕당파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진골귀족 세력을 억압하는 한편, 그들과 이해가 대립된 6두품 귀족을 응원하였다. 신라중대 6두품 유학자들의 대두는 왕권의 비호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원광도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실이나 왕당파 세력과 연결되었음은 분명하다.

원광은 수나라에서 朝聘使인 諸文과 橫川을 따라 귀국하였다. 제문과 황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원광의 귀국은 신라 왕실이나 조정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고본수이전》의 다음 기록은 이런 면을 알려준다.

- C. 법사가 중국에서 돌아올 때에 본국의 君臣들이 존경하여 스승으로 삼으니, 늘 大乘經을 강의하였다. 이 때에 고구려와 백제가 항상 변방을 침범하였다. 왕은 이를 몹시 근심하여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고자 법사에게 乞兵師表를 작성하게 하였다(《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

원광의 귀국할 때의 모습에 대해서는 《속고승전》에도 “원광이 여러 해만에 돌아오니 老少가 모두 기뻐했고, 신라왕 김씨는 만나 뵈고 공경하면서 聖人처럼 우러렀다”(《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라고 하였다. 원광은 신라 왕실의 요청에 의해 수나라에서 귀국하였고,

도 薛烏儒·薛秀眞·薛聰 등이 있다.

왕실은 물론 신하들의 돈독한 귀의를 받았다. 고구려와 백제를 치기 위해 수나라에 보내는 결사표를 작성한 것은 그가 당시의 신라 조정이나 왕실과 밀착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원광은 결사표뿐만 아니라 중국에 보내는 문서나 국서를 거의 모두 작성하였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를 제시하였다. 그는 자주 대궐에 나아갔다. 만년의 원광과 신라 조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속고승전》의 다음 기록이 알려준다.

D. 나이가 이미 많아지자 수레를 타고 대궐에 들어갔으며, 의복과 약과 음식은 왕이 손수 마련한 것이었다. 옆에서 돕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왕은 혼자만이 오로지 복을 받으려 했다. 그 감복하고 공경함이 이와 같았다(《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

원광이 만년에 수레를 타고 대궐에 출입하였다는 내용은 《고본수이전》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sup>13)</sup> 신라 왕실이나 조정은 그를 특별히 배려하였다. 613년(진평왕 35)에 그는 황룡사에서 百高座를 주관하였다. 백고좌는 《仁王經》에 의거하여 100명의 고승을 초청하고 국왕과 대신이 참가하는 법회로써, 王法과 불법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인왕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偽經이지만, 왕권을 강화하면서 護法하려는 내용을 담았다.<sup>14)</sup>

《인왕경》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백고좌가 개최되었다. 수나라는 통일 제국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를 수립하기 위해 《인왕경》을 강의하고 백고좌를 열었다. 수나라는 洛陽의 鴻臚寺에서 외국 유

13)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에 “年臘既邁 乘輿入內 當時群彥 德義攸屬 無敢出其右者 文藻之瞻 一隅所傾”이라 하였다.

14) 權奇悰, <隋唐시대 불교사상과 정치권력—仁王護國般若經을 중심으로—> 《역사상의 국가권력과 종교》, 일조각, 2000, 144~145쪽.

학생을 가르치는 도량을 설치하였는데, 여기서 강의된 경전 속에는 《인왕경》이 포함되었다.<sup>15)</sup> 원광이 중국에 유학하여 홍로시에 머물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왕권을 강화하면서 불법을 펴기 위해 《인왕경》을 강의하거나 백고좌를 개설하는 중국 불교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 들었다. 백고좌를 주관한 원광이 신라 왕실이나 조정과 밀착하였음은 분명하다.

진평왕은 53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많은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다. 진평왕대의 개혁정치는 주로 동륜계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진평왕대 후기의 개혁정치는 사륜계 세력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었다. 이후 사륜계 세력은 점점 강성하여 진덕왕대 초기의 개혁정치를 주도하였고, 마침내 무열왕이 즉위하면서 신라중대의 전제정치를 구축하였다. 동륜계와 사륜계 왕실의 각축 속에서 원광의 위치를 설정하려는 것은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Ⅲ. 계참회신앙의 내용

#### 1. 戒法の 강조

원광의 불교 교학을 밝혀 줄 저술이 따로 전하지 않는다. 반면 그는 중국 유학 과정에서 成實論이나 반야 등 여러 교학은 물론 유교나 도교사상까지 흡수하였다. 이점은 그 불교사상의 다양한 면을 생각하게 한다. 원광은 중국에 유학하여 불법을 구해온 표본으로 이해되었다. 때문에 그의 이후에 신라 승려가 중국에 유학하여 불법을 구해온 사

15) 권기중, 위의 논문, 142쪽.

실이 빈번하였음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는 그의 전기가 ‘圓光西學’조로 기록되었다. 중국 유학에서의 교학 활동을 자세하게 전하는 《속고승전》에는 그가 중국에 들어간 후에 출가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물론 이 기록은 믿을 수 없으며 그의 불교사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고본수이전》에는 원광이 일찍 출가하여 행한 신이한 수도생활의 행적이 기록되었다. 이에 비해 《속고승전》에는 중국에 유학하여 출가한 후의 여러 불교 경전이나 교학을 이해하는 과정이 기술되었다. 귀국하여 원광은 계참회신앙을 가졌는데, 다음 기록에서 이를 이해해 보기로 하자.

E. 본국의 왕이 병이 났는데 의사가 치료해도 차도가 없었다. 원광을 궁궐로 청하여 別省에 있게 하였다. 매일 밤마다 두 시에 깊은 이치를 설명하여 戒懺悔를 받으니, 왕이 크게 그를 믿고 받들었다(《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

원광의 제자인 圓安은 <원광전>을 서술하였는데, 그 속에 위의 내용을 그의 사상적인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원광의 사상적인 특성으로 계참회신앙을 내세우는 것은 《고본수이전》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일연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F. 原宗이 불법을 일으킨 이래 법에 이르는 뗏목이 비로소 설치되었으나, 그 깊은 이치를 깨우칠 여가가 없었다. 때문에 의당히 歸戒滅穢法으로써 어리석고 미혹한 중생을 깨우쳐야 한다(《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

일연이 《고본수이전》의 원광전을 읽고는 그의 사상적 특성으로

지적인 것이 귀계멸참법이다. 원광이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내린 계참회신앙은 바로 귀계멸참법을 가리킨 것이다. 그것은 미혹된 중생을 깨우쳐 인도함으로써, 공인 이후 불교의 이치를 바로 세우려는 목적을 가졌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해 戒法과 함께 멸참법, 곧 점찰법으로 나뉜다.

원광의 교학에서 계법이 매우 강조되었다. 흔히들 원광의 계법은 세속 5계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귀산과 추항이 원광법사에게 나아가 지닐 계법을 받는 모습은 원광의 계법에 대해 정작 달리 생각할 소지를 지녔다. 다음 기록을 음미해 보기로 하자.

- G-1. 우리들이 士君子와 같이 놀려고 할때 먼저 마음을 바로 하여 몸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마 욕을 당하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어찌 어진 사람을 찾아가 도를 묻지 않겠는가?
2. 이때 원광법사가 우리나라에 돌아와 嘉瑟寺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이 찾아가 아뢰기를 “세속의 선비가 몹시 어리석어 아는 것이 없사오니, 원컨대 한 말씀을 주시어 평생의 警戒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3. 원광이 말하기를 “불교에는 菩薩戒가 별도로 있어 그 조목이 10가지인데, 너희들은 남의 신하로서 아마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세속 5계가 있으니, 一은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며, 二는 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三은 벼를 信義로써 사귀며, 四는 전쟁에 나아가 물러서지 않으며, 五는 살생을 가려서 한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를 행하여 소홀하지 말라”라고 하였다(《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

원광은 계법을 이원적으로 언급하였다. 신하된 자로서 지켜야 할 세속 5계와 그들이 감히 지킬 수 없는 보살계가 그것이다. 그는 귀산과 추항에게 세속 5계를 내렸지만, 정작 자신은 엄격한 보살계를 생활화하였다. 불교의 계율은 小乘律과 大乘律로 나뉜다. 전자는 출가

자가 지니는 계율이어서, 禁條를 중심으로 한 형식주의에 흐를 정도의 엄격한 것이다.<sup>16)</sup> 후자는 이타적인 실천 신앙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그 정수는 보살계사상에 있다. 원광은 보살계사상을 내세웠기 때문에 소승율에서 벗어난 것만은 분명하다. 그가 수행할 당시에 신라 불교에는 형식에 흐를 정도의 엄격한 계율을 수행하였다. 다음 기록이 이를 알려준다.

H. 홀로 깊숙하고 험한 곳에 살면서 이리나 호랑이를 피하지 않고 枯骨觀을 닦았다. 피곤하면 조그만 집을 지어 가시덤불로 둘러막은 가운데 맨몸으로 앉았다. 움직이면 이내 가시에 찢리도록 하고, 머리를 들보에 매달아 혼미해짐을 쫓았다(《삼국유사》 권4, 慈藏定律조).

신라 불교에 계율을 정립한 자는 자장이다. 그는 신라 사람 대부분이 계율을 지니게 하였다. 그것은 계율의 생활화였으며, 대승보살계사상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자장이 처음 수행했던 계율은 형식에 흐를 정도로 엄격한 것이었다. 그것은 고골관으로 불렸고, 혼미해짐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대들보에 메거나 가시덤불 속에 맨몸으로 앉아 행하는 수행으로 나타났다. 자장이 처음 행한 고골관은 분명 보살계가 아닌, 형식적인 소승율에 가까운 것이다. 그것은 출가자만을 위한 계율이었다. 원광이 몸소 행한 계율도 보살계로 나타났지만, 신하된 자가 행할 수 없는 엄격한 것이다. 불교 공인 이후 신라 상대말에 이르는 시기에 승려들이 수행하는 계율은 대체로 엄격한 것이어서, 자장이 지닌 고골관과 성격을 같이 하였다. 원광의 보살계도 자장의 고골관과 비슷했을 것이다.

원광은 중국으로 유학하기 이전 삼기산에서 수행하였는데, 당시에 행한 계율은 소승율에 가까웠을 듯하다. 그의 수도 생활에 대해서는

16) 平川彰, 《律義の研究》, 山喜房書林, 1960, 15~17쪽.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 I. 지금 생각하니 법사가 오직 이 곳에 거주하고 있으면 비록 自利를 위한 수행을 행하지만 利他를 행하는 공덕은 없을 것이니, 현재 높은 이름을 드날리지 않으면 미래에 佛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어찌 중국에서 불법을 취하다가 해동의 어리석은 무리를 이끌지 않겠는가(《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

원광은 산신의 권고로 중국에 유학함으로써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이타의 공적을 행했는데, 이전 그의 수행은 자리행을 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소승 수행을 의미하고, 이 때의 그는 소승율을 닦았음이 분명하다.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그는 비록 이타의 보살계를 지녔지만, 그 전통은 삼기산 수행에서 익힌 소승율에서 찾아진다.

원광의 보살계는 출가자를 위한 것이다. 보살계가 출가자뿐만 아니라 중생 구제를 위한 계율을 포함하면서, 자장의 계율은 출가자나 재가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승화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원광과 자장의 계율에 차이를 설정할 수 있다. 원광은 엄격한 보살계 외에 따로 세속 5계를 설정하였다. 그것의 덕목은 당시 신라 사회에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壬申誓記石의 내용은 이런 분위기를 알려준다.

- J. 壬申年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서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서하니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까지 忠道를 견지하고 과실이 없기를 맹서한다. 만약 이 일을 그르치면 큰 죄를 얻을 것을 맹서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우면 가히 모름지기 행할 것을 맹서한다.<sup>17)</sup>

17) 李蘭暎, 《韓國金石文遺補》, 중앙대출판부, 1968, 13쪽에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日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無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 大亂世 可密行誓之”라고 하였다.

임신서기석에서는 忠과 信의 윤리가 특히 강조되었다. 임신년에 두 사람이 맹서한 내용은 충도를 지녀서 신의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대 사회의 각 계층을 상하는 물론, 횡적으로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식을 내세웠다. 신라사에서 충도가 크게 내세워진 때는 김씨 왕실이 세습된 이후 왕권이 점차 강화되는 중고시대였다.<sup>18)</sup> 그리고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맹서하는 임신년은 612년(진평왕 34)이거나 또는 552년(진흥왕 13)으로 추정된다.<sup>19)</sup> 신라중대에는 국가 공동체의식이 강화되면서 충효나 신의를 내세우고, 전장에서 용감성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임신서기석에서 보여준 도덕 윤리는 바로 원광이 귀산과 추항에게 내린 세속 5계와 연결된다.<sup>20)</sup>

원광의 세속 5계는 소승율의 결함을 보완하여, 이타행을 이루려는 대승보살계사상을 담았다. 그것의 궁극은 三聚淨戒를 이루려는데 있다.<sup>21)</sup> 그 속에는 律儀와 善法은 물론 중생을 위한 계율이 포함되었으며, 보살계뿐만 아니라 在家의 중생을 위한 梵網戒가 모두 포용되었

18) 신라사에서 忠과 孝는 같은 시기에 강조된 것 같지는 않다. 신라상고시대 말이나 중고시대에 충도가 특별히 강조되었다. 朴堤上이나 貴山 등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실이 이를 알려준다. 또한 진덕왕 원년(647)에 백제군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丕寧子가 적진으로 나아가 전사하니, 그 아들 擧眞과 종 舍節이 차례로 적진에 뛰어들어 전사하였다. 곧 비령자·거진 부자와 종 합절의 전사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충도를 강하게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삼국사기》 권47, 丕寧子전). 또한 그것은 부모를 부양하려는 효도보다 우선되었다. 그리고 보면 신라중대에도 충도와 함께 효도가 강조되었다. 向德이나 薛氏女는 중고시대 말에서 신라중대에 효행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효녀 知恩은 신라하대의 인물이다.

19) 李丙燾, <壬申誓記石에 관하여> 《서울대논문집》 5, 1975 :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692쪽.

20) 이병도, 위의 논문, 693쪽.

21) 鄭柄朝, <원광의 菩薩戒사상> 《한국고대문화와 인접문화와의 관계》 보고논총 8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27쪽.

다. 원광이 추구한 계율은 바로 이러한 보살계는 물론 범망계에 속한 세속 5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다. 세속 5계의 마지막에 살생을 가려서 한다는 덕목에서 이런 면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 K. 六齋日과 봄·여름에는 죽이지 않으니, 이는 시기를 가리는 것이다. 기르고 부리는 것은 죽이지 않으니 말·소·닭·개를 이름이고, 작은 것을 죽이지 않으니 그 고기가 한 입에도 차지 않음을 말하니 이는 물건을 가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할 만큼에 그치고 많이 죽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세속의 善戒라고 할 수 있다(《삼국사기》 권45, 貴山전).

不殺戒를 고수하는 불교의 계율은 가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려서 죽이는 덕목을 낳았다.<sup>22)</sup>

가려서 죽이는 덕목은 세속의 선계이지만, 출가자를 위한 보살계는 아니다. 원광은 이타행을 위한 보살계를 행하지만, 그것은 불살계를 지니며 세속의 선계와 구별된다. 그의 보살계는 출가자로서의 엄격한 수행을 위한 것이요, 그 속에 중생을 위한 대승보살계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원광의 보살계는 세속 5계를 융섭하여 출가자나 재가자를 모두 포함하는 대승의 화엄보살계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여전히 그는 자장의 고골관과 같은 엄격하고 혹독한 수련을 요구하는 소승율에 가까운 보살계를 가졌다. 그러면서 원광은 세속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계율을 따로 모색하였다.

세속 5계는 대승보살계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그가 가진 엄격한 보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일원적인 계법으로 성립되지는 못했다. 다만 그는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후 삼기산신에게 보살계를 내렸다. 그것

22) 이기백, <원광과 그의 사상>, 앞의 책, 1986, 111쪽.

은 보살계가 출가자의 수행을 위한 한정된 범위에서 벗어나, 재가 신도에게까지 넓혀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출가자 중심의 엄격한 보살계와 세속의 대중을 위한 계율을 종합하면서, 대승보살계를 체계화한 것은 자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 2. 占察法신앙

원광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 계법을 곁들인 滅懺法을 내세웠고, 이를 펴기 위해 점찰보를 설치하였다. 점찰법은 엄격하게 말해 멸참법을 닦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원광의 사상적 특성으로 점찰법을 주목하였다.<sup>23)</sup> 멸참법은 惡業을 뉘우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교법이며, 선악의 기준으로 인간의 운세를 판단하려는 점찰법과 바로 연결된다.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중국에는 塔懺法이나 自撲法이 행해졌다. 탑참법은 가족으로 된 두 장의 帖子에 선과 악의 두 자를 적어서, 그것을 던져 얻은 사람의 운수를 점치는 것이다. 또한 자박법은 죄업을 멸하려는 법회이다(《삼국유사》 권4, 眞表傳簡조). 탑참법이나 자박법은 멸참법으로 연결되며, 일종의 점찰법이다. 다만

23) 원광의 사상적 특성은 초기 유식사상에 접함으로써 신라 법상종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면을 지녔고, 아울러 계법과 점찰법을 편 것으로 요약된다. 그 중 계법과 점찰법을 묶어 원광의 사상적 특징을 보살계사상이나 如來藏사상에서 찾았다(정병조, <원광의 보살계사상>, 27~32쪽. 또는 朴美先, <신라 원광법사의 여래장사상과 교화활동> 《한국사상사학》 11, 1998, 29~43쪽. 그 외 원광 사상의 특징을 점찰법회에서 찾는 연구도 있다(신종원, <원광과 진평왕대의 점찰법회> 《신라초기불교사연구》, 223~227쪽. 또는 박광연, <원광의 점찰법회 시행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43, 2002). 특히 박광연의 연구는 원광의 점찰법회 전반을 충실하게 정리하였다.

원광이 행한 점찰법은 멸참법에 계법을 갖춘, 이른바 고행을 곁들인 참회법이었다. 원광이 엄격한 보살계를 수행하는 이유를 이런 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원광이 점찰법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그것은 점찰보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다음 기록을 참고해 보기로 하자.

- L. 그러므로 원광은 嘉栖寺에 占察寶를 두어 恒規로 삼았다. 이때 檀越尼가 점찰보에 밭을 바쳤는데 지금 東平郡의 밭 100결이 곧 이것이며, 옛날 문서가 아직도 있다(《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

이외에 원광의 점찰법을 알려줄 직접적인 기록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원광은 점찰법을 시행하기 위한 경제적인 뒷받침으로 점찰보를 설치하였는데, 여기에 단월의 토지가 기증되었다. 그것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三階敎의 無盡藏院을 모델로 만들어졌다.<sup>24)</sup>

信行에 의해 제창된 삼계교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위세를 떨쳤는데, 참회법을 내세웠던 점에서 점찰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sup>25)</sup> 삼계교는 지장보살, 곧 《大方廣地藏十輪經》에 의거하여 악업을 없애고 선을 수행하려는 것으로,<sup>26)</sup> 지장보살이 설한 《占察善惡業報經》에 의한 점찰법과 비슷한 면을 지녔다. 그러나 삼계교는 말법시대를 배경으로 유행하였기 때문에 원광의 점찰

24) 박미선, 위의 논문, 32쪽.

25) 정병조, 앞의 논문, 31쪽.

26) 《大方廣地藏十輪經》에서 설한 三階敎에는 一乘·三乘 및 權實을 수행하는 7단계를 설정하였다. 곧 ①佛 ②法 ③僧에 귀의하여, ④중생을 제도하고 ⑤惡을 斷滅하며, ⑥善을 수행하고 ⑦일체의 善知識을 구하는 것이다. 삼계교의 핵심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중생을 구제하고 선지식을 얻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악을 떨하고 선을 수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법과 밀접하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sup>27)</sup> 신라중고시대에 말법사상이 유행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법흥왕 때에 공인된 신라 불교가 아직도 철학이나 논리 체계를 갖춘 이론 불교로 성숙하지 못한 원광의 시대에 말법신앙이 내세워지지 않는 것이다.

원광의 교학에서 미륵이나 지장신앙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없으나, 그는 미륵과 지장신앙을 주목하였을 듯하다. 진평왕 때의 비구니 智惠는 安興寺에서 매년 봄과 가을의 10일 동안 점찰법회를 열었다. 지혜는 仙桃山神母의 도움으로 금 10斤을 얻어서 불전을 장식하였다. 선도산신모가 내린 금이 神社의 대좌 아래에서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지장보살이 모셔졌을 것으로 추측하였다.<sup>28)</sup> 원광이나 지혜의 점찰법회에서 지장신앙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신라중대에도 점찰법회는 꾸준히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대산 南臺의 金剛社에서 행해진 占察禮懺에는 지장신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sup>29)</sup>

점찰법은 《점찰선악업보경》에 의거하여 자기의 업보를 살펴서 참회하는 것이다. 《점찰선악업보경》은 상·하 두 권으로 되었는데, 그 說主는 지장보살이다. 그것은 선악의 업보를 판별하기 위해 길흉을 점치는 내용을 담았지만, 자신의 죄를 참회하려는 懺法을 내세우면서 계행을 수행하는 실천적 성격을 지녔다. 원광의 점찰법은 엄격한 보살계를 곁들이는 면에서 《점찰선악업보경》의 내용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금강사에서 행해진 점찰법회의 모습은 원광의 점찰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 기록을 참고하기로 하자.

27) 박광연, <원광의 점찰법회 시행과 그 의미>, 앞의 책, 118쪽.

28) 신종원, <원광과 진평왕대의 점찰법회>, 앞의 책, 226~227쪽.

29) 신라 오대산의 화엄결사는 성덕왕 4년에 眞如院의 개창을 비롯하여 그 후에 차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결사의 바탕이 된 신앙은 신라중대 사회에서 이미 유행하였다.

- M. 南臺의 남면에 地藏房을 두어 원상의 지장 및 붉은 바탕에 8대 보살을 우두머리로 하는 1만의 지장보살을 그려 모시도록 하라. 여기에는 福田 5명으로 하여금 낮에는 地藏經과 金剛般若經을 읽고, 밤에는 占察禮懺을 외우고, 金剛社라고 일컫도록 하라(《삼국유사》 권3, 臺山五萬眞身조).

오대산 남대의 금강사는 지장보살을 주존으로 모셨다. 거기에서 행해진 점찰법회에는 지장신앙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오대산의 화엄결사에는 밀교신앙이 듬뿍 들어있다. 다음 내용이 이를 알려준다.

- N. 寶川이 항상 靈洞의 물을 길어다가 마셨다. 만년에는 몸이 공중으로 날아 流沙江 밖 蔚珍國의 掌天窟에 이르러 쉬면서 隨求陀羅尼를 외우는 것으로 일과를 삼았다. 동굴신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동굴신이 된지 이미 2000년이 되었지만, 오늘에야 비로소 수구다라니의 참 이치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보살계를 받기 원했다. 계를 받고 나더니 그 이튿날 굴도 또한 형체가 없어졌다(《삼국유사》 권3, 대산오만진신조).

오대산 결사에서 금강사의 점찰예참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 圓通社의 觀音禮懺·水精社의 미타예참·白蓮社의 열반예참·華嚴社의 문수예참이 행해졌다. 그것은 모두 懺法, 곧 참회하는 수행법회이다. 자기의 죄업을 참회하고 수행하면서 밀교신앙을 포용하였음은 흥미롭다.

지혜가 안흥사에서 행한 점찰법회에도 밀교신앙의 모습이 노출되었다. 우선 그것은 선도산신모신앙과 연결되었다. 지혜는 불전 내에 주존 3불상을 장식하고 벽상에는 53불과 6류 聖衆 및 여러 천신과 五岳 神君을 그려 봉안하였다. 5악 신군은 신라의 5악신, 곧 吐含山·智異山·雞籠山·太伯山·公山神을 의미하며(《삼국유사》 권5, 仙桃聖母 隨喜佛事조), 여러 천신은 고대 인도의 토착신이다. 밀교신앙

으로 연결되는 모습은 원광의 점찰법회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는 일찍이 삼기산에서 수행했는데, 그의 부도가 삼기산의 金谷寺에 세워졌다. 선덕왕 때의 금곡사는 밀교 승려인 密本이 주석하였으므로 밀교 도량으로 이해된다. 원광의 교학이 토착신앙을 용납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밀교신앙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불교신앙이 뒤에 밀교 도량과 연결되었음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오대산의 점찰예참에는 밀교신앙이 유행했는데, 보천의 수행은 원광의 그것을 떠올리게 한다. 보천이 울진국의 장천굴에 이르러 다라니를 외우면서 수행하는 모습은 원광이 삼기산에서 수행한 사실을 연상시킨다. 장천굴신이 나타나 보천의 수행을 찬양하면서 보살계를 받은 사실은 삼기산신이 원광의 수행을 찬양하면서 후에 보살계를 받는 모습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장천굴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과 삼기산신이 여우의 모습으로 운명하는 것은 시사성을 준다. 원광의 점찰법회의 모습은 오대산의 금강사에서 행해진 점찰법회에 거의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원광의 점찰법회에는 지장보살이 중요시되었고, 뒤에 밀교신앙으로의 연결이 가능한 토착신앙이 용납되었다.

점찰법회는 자기의 죄업을 참회하려는 것으로 말법신앙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다. 말법신앙은 미륵의 下生신앙에서 그 극치를 이루지만, 지장보살도 석가의 열반 이후 미륵이 하생하기까지의 인간을 구제한다. 원광의 점찰법회에서 지장보살 외에 미륵신앙이 중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 흔적이 찾아진다. 그것은 혼란한 말법 사회에서 인간을 제도하려는 신앙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전륜성왕의 통치를 돕고 석가불과 미륵의 조화를 연출하려는 뜻을 담았다.<sup>30)</sup> 당시에 창건된 興輪寺 등의 사찰에는 미륵이 주존불로 모셔졌다. 전륜성왕의 통치를 돕

30) 이기백, <신라초기 불교와 귀족세력> 《진단학보》 40, 1975 : 《신라사상사연구》, 1986, 81~86쪽.

거나 석가불과의 조화를 이룬 면에서 미륵신앙은 불교가 귀족 중심으로 수용되게 하였으며, 특히 귀족 자제의 꽃인 화랑이 彌勒仙花로 불렸다.<sup>31)</sup>

황룡사가 창건되면서 신라 왕실은 釋宗의식을 추구하였고, 석가불신앙이 일어났다.<sup>32)</sup> 그러나 원광이 활동하던 신라상대말까지 미륵신앙은 넓게 퍼졌고,<sup>33)</sup> 원광의 교학에서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던 듯하다. 왜냐하면 화랑도와 미륵신앙이 밀접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원광으로부터 세속 5계를 받는 귀산과 추항 두 청년은 꼭 화랑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들은 沙梁部에 속한 귀족 가문의 자제로서 화랑과 의식을 같이 하였고, 실제로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또한 원광이 내린 세속 5계는 일반적으로 화랑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 이해되었다. 그렇다면 원광의 교학에서도 미륵신앙이 배려되었던 것이다.

원광의 점찰법회는 말법신앙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륵신앙이 혼란한 사회의 민중을 구제하는 성격을 내세우지 않았다. 석가 열반 후의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신앙도 애써 강조되지 않았다. 미륵신앙은 화랑도의 덕목을 강조하는 면에서 유념되었다. 원광의 계참회신앙은 엄격한 계법을 견지하였고, 점찰법회를 통해 참회적인 수행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뒤에 밀교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착신앙과 친밀하였고, 지장신앙을 다소 곁들였지만 세속 5계와 관련하여 미륵신앙의 흔적을 엿보게 한다.

31) 이기백, 위의 논문, 83쪽.

32) 김두진, <신라 진평왕대의 釋迦佛신앙> 《한국학논총》 10, 1988, 33~36쪽.

33) 김두진, <신라 중고시대의 미륵신앙> 《한국학논총》 9, 1987, 14~18쪽.

## IV. 계참회신앙의 의미

### 1. 呪術불교신앙의 배경

원광의 점찰법회는 占卜과 같은 방법으로 죄악을 없애고 선을 행하게 했다. 아울러 보리를 증진시키고 그것을 깨닫기 위한 실천수행을 강조하였다. 그의 교학은 이론 불교의 심오한 교리를 곁들이면서도, 줄곧 소박한 토착신앙을 용납하였다. 공인된 이래 신라 불교는 토착적인 무격신앙과 결합되었는데, 이론 불교의 성숙은 불교신앙 내에 융섭된 무격신앙과 결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원광이 토착의 무격신앙을 배격하려는 이유를 바로 이런 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sup>34)</sup> 그가 의식했건 못했건간에 그의 사상의 한 귀퉁이에 토착신앙과 불교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원광의 교학은 토착신앙과 친밀하였다.

원광이 배격하려했던 토착의 무격신앙은 불교신앙과 융섭된 것이었다. 그의 교학과 주술 불교나 토착신앙과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원광이 용납한 신이한 토착신앙에 대해 정리하기로 하자. 이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이 참고된다.

- O-1. (陳의) 운수가 다해서 수나라 군사가 揚都에까지 쳐들어가니, 원광은 드디어 亂兵에게 붙잡혀 장차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때 대장이 절과 탑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구하려 하였다. 이르러 보니 불타는 모습은 없고, 다만 원광이 탑 앞에 결박되어 장차 죽게 됨을 보았다. (대장은) 괴이하게 생각하여 즉시 결박을 풀고 놓아 보내니, 위태로움을 맞아 영험을 나타내는 것이 이와 같았다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

34) 이기백, <원광과 그의 사상>, 앞의 책, 1986, 99~100쪽.

2. 후에 어느 俗人이 胎 속에서 죽은 아이를 낳은 일이 있었다. 그 지방 속담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의 무덤에 묻으면 후손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므로, 몰래 그것을 圓光의 무덤 옆에 묻었다. 바로 그 날 벼락이 죽은 태를 쳐서 무덤 밖으로 내던졌다. 이로 말미암아 평소 존경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그를 우러러 숭배하였다(《삼국유사》 권4, 圓光서학조).

수나라 군사가 진의 수도 양도를 함락할 때에, 마침 유학과 있던 圓光은 붙잡혀 죽임을 당할 운명에 놓였다. 그가 구출되는 것이 신이한 연기 설화로 형성되었다. 수나라 장수가 탐과 절이 불타는 것을 보고 달려가 보니 그가 결박되어 있었다. 또는 그의 무덤 옆에 몰래 죽은 아이의 태를 묻으니, 벼락이 내려쳐서 그것을 무덤 밖으로 내쳤다. 그것은 圓光 자신이 신이한 능력을 직접으로 발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않으면서, 불교신앙 면에서 공경받게 된 사실을 기록하였다. 신이한 신앙은 圓光이 국왕이나 백성들로부터 공경을 받게 만들었다. 그러나 圓光은 자신이 신이한 주술적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유념된다.

《속고승전》의 圓光전에는 그가 중국에 유학하여 虎丘山에서 覺觀을 닦았으며, 成實이나 열반 등 여러 경론을 습득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아울러 그의 교학을 총평하여 “圓光은 진한과 마한에 正法을 널리 편 인물이다”(《삼국유사》 권4, 圓光서학조)라고 하였다. 또한 《고본수이전》에는 그가 삼기산에서 수행한 사실이 기록되었다. 이때 圓光의 행적은 신이하게 기록되었다. 그것은 그가 삼기산신과 인연을 맺는 연기 설화이다. 그 외에 圓光의 행적은 마치 《속고승전》에서의 그것처럼 정법을 널리 편 인물로 이해된다. 삼기산에서 수도하는 圓光의 모습에 대해 삼기산신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P. 옳도다. 그대의 수행이여! 무릇 수행자는 비록 많으나 법대로 행하는 자는 매우 드물다. 지금 이웃에 있는 중을 보니 주술을 급히 닦으려 하지만 얻는 것이 없다. 시끄러운 소리가 남의 靜念을 괴롭힐 뿐이다. 살고 있는 곳이 나의 행로를 방해하니, 매번 왕래할 때마다 미운 생각이 난다. 법사는 나를 위하여 그에게 고하여 딴 곳으로 옮겨가게 하라. 만약 오랫동안 머무른다면 내가 갑자기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

삼기산에서 수행할 때 원광은 밤에 홀로 앉아 경전을 염송했는데, 이웃에는 주술을 닦는 중이 있었다.<sup>35)</sup> 삼기산신은 원광의 수행이 옳다고 칭송하면서 주술을 행하는 중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졌다. 삼기산신과 특별한 인연을 맺는 것을 제외하면 원광은 정법을 펴는 착실한 수행과 함께 불교 교학에 정통하였다. 그런데 그와 가까웠던 삼기산신은神通한 능력을 가졌다. 다음 기록을 참고해 보기로 하자.

- Q-1. 밤중에 벼락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 다음날 보니 산이 무너져서 중이 거주하던 절을 물어버렸다.
2. 내 나이 거의 3천세가 되고 神術도 이만하면 가장 훌륭하므로, 이런 것이야 조그만 일인데 어찌 놀라겠는가? 나는 장래의 일을 모르는 것이 없고, 천하의 일도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다(《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

삼기산신은 산을 무너뜨릴 정도로 신술을 갖추었다. 곧 그는 혐오스럽게 여기던 주술승의 거처를 산사태로 물어버렸다. 원광의 불교 교학은 주술을 행하는 중을 배격한 반면 삼기산신의 신술을 허용하였다. 바로 이점이 그의 불교를 토착신앙에 대한 배격으로 이해하는 것

35)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에 “思靜居修道 獨居三岐山 後四年 有一比丘來 所居不遠 別作蘭若 居二年 爲人強猛 好修呪術 法師夜獨坐誦經”이라 하였다.

을 어렵게 한다. 주술승과 삼기산신의 성격을 보다 천착해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록을 유념하기로 하자.

- R. 선덕왕 德曼이 병이 들어 오랫동안 낫지 않자, 興輪寺 중 法揚이 부름을 받아 병을 치료하였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이때에 密本법사의 덕행이 소문으로 나라 안에 자자하니, 좌우의 신하들이 법칙과 바꾸기를 청했다. 왕이 궁중으로 불러들이니, 밀본은 침실 밖에서 藥師經을 읽었다. 경을 다 읽고 나가 가졌던 六環杖이 침실 안으로 날아 들어가,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칙을 찢러 뜯 아래에 거꾸로 박히게 하자 왕의 병은 바로 나았다. 이때 밀본의 이마 위에 오색의 神光이 나와 보는 사람이 모두 놀랐다(《삼국유사》 권5, 密本摧邪조).

삼기산에서 주술승이 죽임을 맞는 것과 선덕왕 때에 밀본법사에 의해 흥륜사의 중 법칙이 거세되는 모습은 매우 흡사하다. 우선 법칙은 흥륜사의 승려이면서 선덕왕의 병을 고치는 주술을 행했으므로, 삼기산의 주술승과 같은 모습으로 이해된다. 법흥왕 22년(535)에 공인된 후 불교는 토착의 무격신앙과 대립하였다. 그러한 진통을 겪으면서 불교는 무격신앙의 모습으로도 믿어졌다.<sup>36)</sup> 불교신앙 속에 토착의 무격신앙이 흡수되었지만, 그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었다. 주술승에 대한 원광의 승리는 불교가 주술불교 신앙을 배제하면서 정법을 추구해 감을 의미한다. 법칙에 대한 밀본의 승리 또한 주술 불교를 배제하면서 정법의 밀교신앙을 추구해 감을 뜻한다. 밀본은 단순한 주술승이 아닌 정법의 밀교 승려이다. 《삼국유사》의 神呪편은 밀교 승려인 밀본과 惠通·明朗을 다루었는데, 그들은 무격신앙과 혼합된 주술 불교를 배격하면서 인도와 중국을 거쳐 보편적으로 추구된 밀교를 표방하였다.

밀본이 金良圖의 병을 고치기 위해 法流寺의 중을 죽인 여러 귀신

36) 김두진, <신라 중고시대의 미륵신앙>, 앞의 책, 23~24쪽.

을 제거하는 모습도 주술 불교를 배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밀본은 갑옷과 창으로 무장한 사방의 大力神에게 명령하여 귀신을 결박하고, 여러 天神으로 하여금 호위하도록 하였다(《삼국유사》 권5, 밀본최사조). 이러한 대력신과 천신의 모습은 지혜가 안홍사에서 여러 천신과 오악신 등을 장식하고 개최한 점찰법회를 떠올리게 한다. 다만 원광과 주술승의 대립은 삼기산신과 주술승의 갈등으로 표출되었고, 산신에 의해 주술승이 처단되었다. 삼기산신은 신라 토착신앙에서 받아들여졌던 읍락이나 부족의 시조신으로 번개와 천둥을 관장하였는데,<sup>37)</sup> 장래나 천하의 일에 모두 통달한 신술을 가졌다.

원광은 산신의 도움으로 중국에 유학하였다. 귀국하자 산신은 원광으로부터 서로 같이 살아가기 위한 보살계를 받았다. 신술에 능통한 산신도 세월의 무상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다음 기록을 참고해 보자.

- S-1. 법사가 다음 날 바라보니 큰 팔뚝이 구름을 뚫고 하늘가에 닿았다. 그 날 밤에 신이 말하기를 “법사는 나의 팔을 보았는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미 보았는데 매우 기이했습니다”라고 했다. 이로 인하여 俗談에 臂長山이라 불렀다.
2. 신이 말하기를 “비록 이 몸이 있다하나 무상의害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얼마 있지 않아 고개 마루에 몸을 버릴 것이다. 법사는 와서 영원히 떠나는 나의 영혼을 전송해 달라”고 하였다. 약속한 날에 가서 보니 옷칠을 칠한 듯한 검은 여우 한 마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혈떡거리다가 마침내 죽었다(《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

삼기산신의 모습은 거대한 팔뚝의 모습으로 비쳤지만, 결국은 세월의 무상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늙은 여우의 모습으로 죽었다. 이점은 산신으로 비쳐진 신라 토착신앙의 운명을 짐작하게 한다.

37) 김두진, <신라 六村長신화의 모습과 그 의미> 《신라문화》 21, 2003, 106쪽.

삼기산신과 결합된 원광의 모습은 밀교승인 밀본의 행적과 비교하여 시사성을 준다. 주술승의 제거가 삼기산신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정법을 내세운 원광의 불교신앙과 연결되어 마치 밀교신앙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불교가 일어나기 직전 인도에는 六師外道가 성행하였는데, 아울러 토착신앙에 의한 제사나 의례·희생제 등이 행해졌다. 석가가 출세한 후 외도들의 논리는 因明論으로 정리되어 뒤에 유식학으로 성립되었다. 반면 당시에 유행했던 제사나 의례의 방법이 갖추어지면서, 여기에 철학적 의미를 첨부하여 眞言이 확립되고 밀교신앙이 정립되었다. 그리하여 顯敎에 대한 비밀敎法이 정법으로 갖추어졌다. 밀교는 인도의 토착신앙이 철학적 교의를 갖춘 정법 불교로 성립된 것이다. 신라의 토착신앙과 밀착된 원광의 정법불교의 모습은 인도에서 밀교신앙이 확립되는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원광의 불교신앙이 밀교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신라의 토착신앙과 원광의 정법불교 교학의 친밀했던 모습은 인도의 토착신앙이 정법의 밀교교학을 성립시키기 이전의 사정을 떠올리게 한다.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이후 정법불교 교학이 성립하기까지 주술적인 불교신앙이 형성되었는가 하면, 토착신앙의 전통을 강조하거나 정법불교 교학을 확립하려는 기운이 팽배하였다. 그러한 와중에서 원광의 교학은 일단 주술 불교를 배격하면서 정법불교 교학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것을 확립하는데 토착신앙, 곧 삼기산신은 대단히 협조적이었다. 다만 정법불교 교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토착신앙이 계속해서 강조될 수는 없었다.

삼기산신은 신통력을 가졌고 신술을 닦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지만 비장산에서 외롭게 죽었다. 비장산이라는 이름은 삼기산신이 큰 팔뚝의 모습으로 나타난 데서 붙여졌다.<sup>38)</sup> 원광과 결속된 삼기산신이 상

38) 인도의 Veda에는 천지를 창조한 유일신으로 原人(Puruṣa)이 있다. 그는 千

정하는 바를 간단하게 추론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라상대말에서 중대 초기에 사륜계의 왕실이 漢化정책을 표명하면서 전제주의를 강화하였다면, 동륜계 왕실을 포함한 진골귀족들은 신라의 토착신앙을 고수하였다. 삼기산신이 보여주는 함축적인 의미는 신라 진골귀족들이 고수하려는 토착적 전통과 맥이 닿는다. 아울러 원광의 정법 불교는 신라중대 이후 자장을 위시해서 보편적인 불교 교학이 성립하는 것과 연결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신라상대말에 동륜계 왕실을 위시한 진골귀족들의 전통을 외면하지는 않았다.

## 2. 신라 범상종교학의 태동

원광의 불교 교학에 대해 《속고승전》과 《고본수이전》이 알려주는 분위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자가 중국에서 원광의 교학 활동을 주로 언급했다면, 후자는 대체로 국내에서의 그의 활동을 알려준다. 전자에는 원광의 교학이 갖추어지는 면이 잘 기록되었다면, 후자에는 귀국 후 그가 왕실 및 국내 정세와 연결된 면이 기록되었다. 자연 두 기록은 원광 교학의 다른 면에 각각 비중을 두어 서술되었지만, 그 궁극은 같은 모습으로 비쳐졌다. 두 저술은 계참회신앙, 곧 계법과 점찰법회를 강조하였다. 원광의 교학이 정법을 추구하지만 신이한 토

---

手・千眼・千足を 가졌다. 이미 존재하는 것도 바로 이 원인으로 말미암았다. 원인은 인도의 四姓과 연결하여 설명되었다. 원인의 耆은 하늘에 있어 볼 수 없으며 죽지 않은 존재라고 한다. 곧 그의 입을 통해 태어난 Brāhman과 두 팔을 통해 태어난 Kṣhatriya, 두 눈을 통해 태어난 Vaiśya가 이에 속한다. 지상에 있는 원인의 耆은 윤회하지 않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두 다리를 통해 태어난 Sudra가 이에 속한다. 삼기산신, 곧 큰 팔뚝 모습으로 나타난 비장산신은 원인의 刹利種 탄생설화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삼기산신이 신라 왕실과 연관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착신앙과 친밀하거나 儒學이나 老莊에 능통한 점등도 공통으로 나타났다.

원광의 교학에 대해서는 《속고승전》의 기록이 도움을 준다. 중국에 유학할 당시에 그는 여러 경전에 접하였다. 그가 접한 교학이나 경전은 대략 다음과 같다.

T. 僧旻의 제자가 설한 강의에 참석하였다.

成實·열반·三論·數論을 접하였다.

虎居山에서 念定과 覺觀을 닦았다.

四舍를 섭렵하고 八定을 닦았다.

般若를 강의하고 攝論을 일으켰다(《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

원광의 교학은 성실론에 기초하였으며, 반야나 섭론에 익숙하면서 유식학을 성립하는데 공헌하였다. 중국에 들어간 그는 승민 계통의 교학에 접하면서 성실론과 열반론에 심취하였다. 승민은 527년(법흥왕 14)에 입적한 인물로서 성실학의 대가였다. 원광에게 영향을 준 승민의 제자는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 승민의 만년에 제자인 警韶는 583년(진평왕 5)에 입적하기 때문에, 원광이 직접 그의 강의를 들었는지는 의문이다.<sup>39)</sup>

원광은 승민의 제자라기보다는 문도로부터 성실학을 전수받았다. 성실론은 유식교학의 초기 단계에서 성립된 것으로 법상의 실체를 인식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원광은 유학과 도교에 밝았는데, 그러한 그의 학문은 불교 교학을 받아들이면서 성실론에 빠지게 하였다. 그의 불교신앙 속에 토착신앙에 대한 배려가 나타난 점도 성실론에 기초한 초기 유식학의 일반적 경향에서 이해된다. 외도의 교리가 인명론을

39) 崔鉛植, <원광의 생애와 사상－삼국유사 원광전의 분석을 중심으로－> 《泰東古典研究》 12, 1995, 21쪽.

거쳐 유식학으로 성립할 때에 토착신앙이 강조되었다. 석가 이전 외도의 교리는 인도 토착신앙의 전통을 강하게 지녔는데, 인명론으로 성립되어 불교 교학 속에 흡수되었다. 인명론은 초기 유식학의 교학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불교의 논리로 받아들여져, 彌勒이나 世親이 이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 후에 陳那는 《集量論》에서 인명학을 불교 논리로 체계화하였는데, 그것은 新因明論으로 불리면서 유식학을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었다.

三藏이나 數論을 익히고 四含을 섭렵하여 八定을 닦았던 점도 원광이 성실론을 추구하면서 유식학을 습득한 사실을 알려준다. 우선 그것은 部派불교의 전통을 견지하였다. 특히 수론은 외도에서 중시되었으며 일체 법상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을 25諦로 나누어 설명하였다.<sup>40)</sup> 수론은 성실론으로 연결되는 것이지만, 지혜를 의미하면서 실체의 법상을 제도하는 근본으로 이해되었다.<sup>41)</sup> 원광의 교학은 성실론이나 수론에서 출발하였고, 阿含經을 공부하여 부파불교에서 추구한 소승의 선법인 八定을 닦았다.<sup>42)</sup> 그렇지만 원광은 소승 수행에 머

40) 外道僧 法輪師는 25諦가 自性을 가지며, 자성은 慧와 智를 낳는다고 하였다. 지에 의해 五分이 생기고 그것은 五知根을 낳고, 5지근에 의해 五業根을 낳고 5업근에 의해 五大를 낳는다고 한다. 25체는 자성을 가지면서 實在하기 때문에 성실론과 밀착될 수 있다.

41)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에 인용된 《속고승전》에는 數論이 아니라 釋論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판본의 《속고승전》에는 수론으로 기록되었고, 《해동고승전》에는 같은 사실을 서술하면서 아예 수론이 삭제되었다. 이점은 원광의 초기 교학으로 언급된 수론이 본 모습일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뒤에 원광은 유식학의 교리 체계를 정립시켰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 편찬된 그의 전기에서 수론이 삭제되었고, 일연은 그것을 《大智度論》인 석론으로 바꾸어 기술한 듯하다. 그렇지만 석론으로 기술되는 이유는 그의 교학이 뒤에 般若와 攝論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데서 찾아진다.

42) 최연식, <원광의 생애와 사상>, 앞의 책, 22쪽.

몰지 않았다. 삼기산신이 중국 유학을 권한 것은 이타행의 추구를 위해서였다. 성실론과 대조되는 삼론을 습득하면서 念定과 覺觀을 닦은 것은 그의 교학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삼론학은 공사상을 추구하지만, 나중에는 中觀으로 나아갈 소지가 적었다. 그것은 성실론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원광은 8정을 닦았지만, 이를 계기로 염정과 각관을 수행하였다. 이점은 그의 수행이 대승에 기초한 실천신앙을 갖게 하였다. 삼기산에서 그는 밤에 혼자 앉아 경전을 염송하였다. 그것은 바로 실천수행으로 이어진다. 실천수행 신앙이 밑바탕이 된 이타행의 추구는 그가 반야나 섭론에 심취하게 하였다. 섭론인 攝大乘論은 無着이 지었고, 그 해설서인 《攝大乘論釋》은 세친이 지었다고 전한다. 그것은 실천수행을 강조하는 유식학을 성립시켰다.<sup>43)</sup> 아울러 그것은 법상의 차별을 인식하지만, 心學과 慧學에 의한 寂滅을 추구함으로써 융섭적인 성격을 가졌다. 원광이 반야에 매료됨으로서 중관적인 공사상에 접하였다.

원광은 신라 불교교학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인물이다. 그의 교학은 유식학, 곧 신라 법상종교학을 성립시키는 바탕이 되었다. 처음 그는 성실론에 입각한 유식교리를 흡수하였지만, 뒤에는 섭론을 익혔고 실천수행신앙을 강조하였다. 중국 호거산이나 신라 삼기산에서의 수행이 이를 알려준다. 귀국 후 그는 점찰법과 함께 계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교학은 뒷날 眞表의 점찰법을 연상시켜준다. 진표의 교

43) 《攝大乘論》은 10종의 勝相으로 나뉘어 설명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應知依止勝相 ②應知승상 ③應知入승상 ④入因果승상 ⑤入因果修差別승상 ⑥於修차별승상 ⑦此中依心學승상 ⑧此中依慧學승상 ⑨學果寂滅승상 ⑩智차별승상

《섭대승론》은 차별의 법상을 들어내려는 것이지만, 계율에 의한 수행과 寂滅을 추구하였다. 그것은 곧 실천수행 신앙을 가진 셈이다.

학은 점찰법회라는 특수한 신앙 형태로 파악되기도 하지만,<sup>44)</sup> 신라 법상종의 교의로 이해된다.<sup>45)</sup>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U-1. 開元·貞元 연간에 나온 두 釋教錄에는 正藏으로 편입되었으니, 비록 性宗으로서는 벗어났으나 相敎의 大乘으로서는 오히려 우월한 것이다.

2. 점찰경에서 輪을 던져 相을 얻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에 진표는 懺悔하여 簡子를 얻어서 법을 듣고 부처를 보는 것이 誣亡하지 않음을 알았다(《삼국유사》 권4, 眞表傳簡조).

일연은 점찰경에 의한 점찰법회가 법성종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법상종교학으로서는 우수함을 언급하였다. 그것은 점찰법이 단순히 占卜신앙을 펴는 법회로 오해되는 소지를 미리 막으려는 의도를 담았다. 진표는 점찰법회에서 간자를 던져서 吉凶에 관한 상을 얻는 것이 법을 듣고 부처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그것은 법상을 인식하는 교학으로 이어진다. 점찰법회를 통해 진표는 법상종교학을 정립하였다. 진표의 법상종교학에서 중시된 것은 지장과 함께 미륵신앙이지만, 지장보다는 미륵이 더 殊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고 지장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진표의 교학은 단순한 점복신앙을 펴려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진표는 간자를 받기 위해 피와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행을 닦았다. 지장으로부터 淨戒를 받았으나,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여 미륵으로부터 189개의 간자를 받았다. 모든 간자는 沈檀木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 제8·제9간자는 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미륵

44) 金煥泰, <신라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연구> 《불교학보》 9, 1972.

45) 文明大, <신라 法相宗(瑜伽宗)의 성립문제와 그 미술-甘山寺 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중심으로- > 상, 하 《역사학보》 62, 63, 1974.

의 손가락뼈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렇듯 진표의 점찰법회에서 미륵이 중심을 이루었고, 계율이 강조되었다. 점찰법회와 함께 계율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원광의 교학은 진표의 법상종교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라중대에 법상종 교단은 미륵을 주존불로 모시지만 부존을 미타와 지장으로 모시는 두 교단으로 나뉘었다. 그 중 미륵과 미타를 모시는 교단은 太賢으로 대표되었고, 미륵과 지장을 모시는 교단은 진표로 대표되었다.<sup>46)</sup>

미륵과 미타를 모시는 교단은 圓測으로부터 道證을 거쳐 태현에게로 이어졌고 순수교리를 추구하는 경향을 지녔다면, 미륵과 지장을 모시는 교단은 원광에서 진표로 이어졌고 실천수행신앙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졌다.<sup>47)</sup> 전자가 정도신앙을 추구하는가 하면 후자는 엄격한 계율을 내세웠다. 원광의 교학은 점찰법회를 열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출가자가 지니는 엄격한 보살계를 지녔거나 삼기산 또는 호구산에서 염정과 각관을 닦으면서 실천수행신앙을 내세웠다는 면에서, 진

46) 문명대, <신라 법상종의 성립문제와 그 미술> 하 《역사학보》 63, 160쪽.

47) 중국의 慈恩·惠沼·智周 등으로 이어지는 전통과 유식사상과 대항할 수 있는, 원측에서 道證·太賢으로 이어지는 유식학과를 西明派라고 부른다. 중국 정통과의 유식사상이 五性各別을 주장하였다면, 서명과 유식사상은 무수한 법상에서 어느 것을 취하여도 진리로 이어진다고 하여 융섭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 원광의 교학이 이러한 융섭사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지적하기는 어렵다. 그가 성실론에 입각하였음은 처음에 중국 정통과 유식사상에 매료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원광은 三論과 반야를 접하면서 攝論에 익숙하였다. 이후 그의 사상은 융섭적인 성격을 지니었을 듯하다. 진표계의 법상종 사상은 고려초에 성행하였고, 이들의 교학은 新法相사상을 성립시켰다(김두진, <고려초의 법상종과 그 사상> 《韓祐勳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1981 : 《균여화엄사상연구》, 일조각, 1983, 132~139쪽). 이점은 원광에서 진표로 이어지는 법상종 사상 내에 융섭적인 성격이 갖추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계의 법상종교학으로의 연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광 교학의 성격이나 그의 법맥이 진표계의 법상종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원광의 제자로 圓安이 있다. 그는 원광전을 지었으며, 心學에 조예가 깊었다. 원안은 유식에 밝았음이 분명하다. 그 외에 원안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진표는 12살 때에 金山寺의 崇濟(또는 順濟)법사에게 나아가 출가하였고, 승제는 唐에 유학하여 善道 三藏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승제나 선도 삼장 또는 진표가 바로 원안이나 원광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원광의 교학은 섭대승론을 익히는 등 유식불교에 정통하였지만, 당시에 신라 법상종교학이 성립되었던 것도 아니다.

원광은 일찍이 嘉瑟寺에 주석하였고, 雲門寺의 교학과 연관되었음은 흥미를 끈다. 다음 기록을 참고해 보기로 하자.

- V. 祖師 知識은 중국에 가서 불법을 전해 받고 돌아오는 길에 서해상에 이르자, 龍이 그를 맞아 용궁으로 들어가서 불경을 외우게 하였다. 金羅袈裟 한 벌과 검하여 아들 璃目을 그에게 주어 모시고 따라가게 하였다. ... 서로 작별하고 돌아와서 이 골짜기에 이르니 졸지에 한 노승이 나타나 스스로 원광이라 일컬고, 印櫃를 안고 나와서 조사에게 주고는 이내 사라졌다(《삼국유사》 권4, 寶讓梨木조).

신라말에 보양이 운문사를 개창하는 사실은 원광의 행적으로 혼동하여 기록되었다. 金涉明이 지은 원광전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었고, 그것은 《해동고승전》의 원광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일연은 원광과 보양의 행적을 구별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그렇지만 그는 원광과 운문사의 창건을 연결하여 기록하였다.

조사 지식은 보양과 같은 사람이거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sup>48)</sup> 그는 동해 용왕으로부터 불경과 함께 가사 및 용왕의 아들인 이

목을 데리고 나와 운문사를 창건하였다. 그는 원광으로 자칭하는 노승으로부터 印櫃를 받고는 五岬寺의 폐사지에 鵲岬寺를 세웠는데, 뒤에 그것은 雲門禪寺라고 불렸다. 원광으로부터 인계를 받아 이루어지는 운문사는 그의 교학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원광의 교학은 운문선종의 선풍과 연결되었음이 분명하다. 원광과 운문사의 교학이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 뒤에 원광의 행적과 보양의 행적이 서로 혼동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조사 지식은 그 이름으로 보아 유식사상에 정통했으며, 지식으로 혼동된 보양도 유식사상에 밝았던 禪僧이었다.<sup>48)</sup> 또한 고려후기에 운문사는 유식사상에 밝은 圓應國師 學一이 주석하였다. 학일은 반야에 정통하였다.

원광이 유식불교의 교학을 정립시켰고 正法을 표방하였지만, 신이한 토착신앙을 외면하지 않았다. 원광은 진표계 범상종과 뚜렷하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라 범상종교학을 대동시키는데 헌신적으로 기여하였다. 나말여초를 지나면서 태현계 범상종의 법맥이 전하지 않지만, 진표계의 법맥은 오히려 융성하였다. 원광의 교학은 진표계의 법맥에서 상징적으로 내세워졌으며, 운문사 계통의 교학과도 밀접하였다. 원광의 교학에 나타난 念定이나 覺觀의 강조나 실천수행신앙은 운문사 계통의 禪風과도 연결되었다.

48) 《삼국유사》 권4, 보양이목조에 “祖師知識 上文云寶讓”이라 하였다.

49) 寶讓은 풍수지리설에 밝았던 선승이었다. 왕건의 軍略家로 출전하여 犬城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데는 풍수지리적인 식견이 작용하였다. 나말여초에 桐裏山門을 중심으로 한 풍수지리설은 유식론적인 禪觀으로 파악된다. 山水의 형세를 살피는 풍수지리적 식견은 범상종 사상으로 파악될 소지를 가졌다. 그런 면에서 보양은 유식사상에 밝았다.

## V. 맺음말

원광은 신라 불교교학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는데, 그의 생애와 교학 활동 및 사상경향은 기록자나 연구자에 따라 다소 혼동되어있다. 자연 일생이나 활동에 대한 정확한 복원이 그의 교학 사상이나 신라 불교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지금까지 원광에 대해 다르게 기록한 《속고승전》이나 《고본수이전》의 내용을 고증하여, 그 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 원광의 교학을 부각하였다. 따라서 옳지 않게 생각되는 다른 기록은 버려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 결과 원광의 교학에 대한 연구도 서로 맞지 않거나 달리 주장된 경우가 허다하다. 원광에 대한 기록이 서로 달리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검토하면 공통되는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이 상당히 찾아진다. 이 글은 그러한 공통성이나 일치하는 기록을 중심으로 삼아 그의 교학을 복원하고자 한다.

원광은 554년(진흥왕 13)에 태어났으며 13세가 되던 566년(진흥왕 27)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출가하였다. 30세가 되던 583년(진평왕 5)에 그는 三岐山에 들어가 수도하였다. 그 곳에 6년을 머문 후 589년(진평왕 11)에 중국으로 유학하였다. 중국에서 그는 成實이나 涅槃·攝論 등의 여러 교학에 접하고는 47세 때인 600년(진평왕 22)에 조빙사인 諸文과 橫川을 따라 귀국하였다. 귀국 후 그는 嘉瑟寺에 머물렀는데, 602년에 이르는 시기에 貴山과 籌項 두 청년이 찾아와 지닐 계율을 구하자 세속 5계를 내렸다. 국내에서 원광은 왕실이나 신하들로부터 돈독한 귀의를 받았다. 55세가 되던 608년(진평왕 30)에 그는 乞師表를 작성하였고, 중국으로 가는 문서는 대개 그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다. 613년(진평왕 35)에 그는 황룡사에서 백고좌를 주관하였다. 84세

가 되던 637년(선덕왕 6)에 입적하였다.

원광 교학의 특징은 戒懺悔신앙에서 찾아진다. 그것은 엄격한 계법을 지니고 점찰법회를 행한다. 원광의 교학에서 계법은 매우 강조되었다. 그는 세속 5계를 배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자신은 남의 신하된 자로서 감히 행하기 어려운 보살계를 지녔다. 그것은 자장이 출가하면서 행한 枯骨觀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 처음 원광은 小乘律과 같은 엄격한 계율을 가졌는데, 이타행을 추구하면서 출가자를 위한 보살계를 지녔다. 그는 계율과 함께 죄업을 멀하려는 점찰법회를 개최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점찰법회가 자주 행해졌다. 원광은 미륵과 지장신앙을 강하게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그의 점찰법회에는 미륵과 지장신앙이 용납되었다. 이점은 그의 점찰법회가 말법신앙을 배경으로 성립된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불교 공인 이후 원광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신라 사회에는 토착신앙과 불교신앙이 대립과 절충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런 속에 원광은 정법불교 교학을 정립시키려 했다. 그러기 위해 원광은 주술 불교를 배격하면서, 오히려 신라 토착신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다. 그가 토착적인 신이신앙을 용납함도 초기에 성실론적인 유식사상을 성립시킨 것과 관계가 있다. 外道の 因明論이 유식사상으로 성립될 당시에 인도의 토착신앙이 강조되었다. 원광은 뒤에 삼론에 접하였으며 염정과 각관을 닦았고, 반야나 섭론에 익숙하면서 신라 법상종교학을 태동시키는데 헌신하였다.

원광의 교학은 眞表系로 이어져 신라 법상종을 성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신라중대에 법상종 교과로는 진표계 외에 太賢系가 있었지만, 원광의 교학이 이들과 어떻게 다른지는 잘 밝히지 못했다. 고려 이후 태현계 법상종의 법맥은 분명하게 전하지 않지만, 진표계 법상종의 법맥은 융성하였다. 원광의 교학은 고려시대 운문사를 중심으로

하는 선종과도 연결이 가능하다. 그의 교학과 고려초의 범상종이나 운문사가 속한 가지산문의 사상경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천착해서 밝혀야 한다.

주제어 : 圓光, 戒懺悔信仰, 世俗五戒, 占察法會, 法相宗敎學

## ABSTRACT

## Wonkwang's Penitence-belief with commandments and its Meaning

Kim, Doo-Jin

There are two kinds of Wonkwang(圓光)'s biographies, Sokgoseungjun(續高僧傳) and Gobonsuijun(古本殊異傳), but their contents are very different. Naturally, it is difficult to talk about his life and the time of entering the Buddhist priesthood, even his birth and death surely. As a result, many scholars have made studies of him but there is not valid conclusion yet. It was to suggest more obvious Wonkwang's activity and Buddhist studies that I made this thesis up through related records and researches on it. Documents of Wonkwang's activity in Samguksagi(三國史記) are accurate comparatively.

According to it, Wonkwang was born in 554 and entered the Buddhist priesthood in around 566. When he became 30 years old in 583, he got to Mt. Samgi(三岐山) and had asceticism. Wonkwang went to China to study and learnt various Buddhist studies, Seongsil(成實) and Yeolban(涅槃), Seopron(攝論) etc, after staying 6 years there. Then he came back to Silla in 600 following envoys, Jemun(諸文) and Hoengcheon(橫川). He had stayed at Gaseulsa(嘉瑟寺) after coming back. When Gwisan(貴山) and Chuhang(籌

項) visited him and wanted to take his Vinaya, Wonkwang gave them Common Five Commandments(世俗五戒). He was highly regarded by the royal family and retainers of Silla. Also, Wonkwang made out A Diplomatic note to beg troops(乞師表) in 698. In fact, most of diplomatic notes to China were written out by him at the time. Furthermore, he had charge of Baekgojwa(百高座) at Hwangryongsa(皇龍寺) in 613 and, finally, passed into Nirvana in 637 as 84 years old.

A Characteristic of Wonkwang's Buddhist studies was Penitence-belief with commandments(戒懺悔信仰) that meant to hold Chomchal Buddhist mass (占察法會) with strict commandments. In his Buddhist studies, Precepts were very emphasized. The fact that he gave Common Five Commandments to Gwisang and Chuhang is famous but his Bodhisattva Commandments(菩薩戒) were too difficult to keep as a retainer. Which had some similarities to Jajang(慈藏)'s Gogolgwang(枯骨觀), Jajang kept after entering the Buddhist priesthood. In the early times of Wonkwang's priesthood, he got strict commandments like Commandments of Hinayana Buddhism. That is to say, he had Bodhisattva Commandments for Buddhist monks chasing Altruistic action(利他行). In addition to his commandments, Wonkwang held Chomchal Buddhist mass to get rid of sins.

Oppositions and Conferences between Aboriginal faiths and Buddhism used to repeat in Silla society from the Buddhism approval to Wonkwang's time. So he tried to set up the Buddhist studies. Wonkwang rejected Buddhism with incantation positively but had a positive attitude to Aboriginal faiths of Silla for it. After then, he learnt Samron study and trained himself in Right notion(念定) and Ascetic exercises to think and meditate(覺觀). At last, Wonkwang devoted himself to bring Dhamalaksana studies(法相宗教學)

of Silla getting used to Banya(般若) and Seopron.

Key word : Wonkwang(圓光), Penitence-belief with commandments(戒懺悔信仰),  
Common Five Commandments(世俗五戒), Chomchal Buddhist mass(占  
察法會), Dhamalaksana studies(法相宗敎學)